

PHOTO+



9 772095 402004
ISSN 2093-4020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아름다운 로리 닉스 The City

오랜 세월을 거치며 미술사에서는 다양한 미적 범주론이 거론돼 왔다. 18세기 에드먼드 버크는 숭고와 미를 대치시키며 고통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와 시간을 뒤 실제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공포가 희열로 바뀌는 것을 '숭고'라고 규정했다. 숭고는 고통이 유쾌한 감정으로 전위되며 일어난다. 엄청난 자연 재해 혹은 건물의 붕괴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 바로 숭고의 체험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곧 미적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고통과 두려움이 야기된 상태에서 '이 공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갖춰지면 격렬한 감동이 선사된다. 이것이 버크가 말하는 숭고, 즉 '즐거운 공포의 상태'다.

글 김아람



Aqua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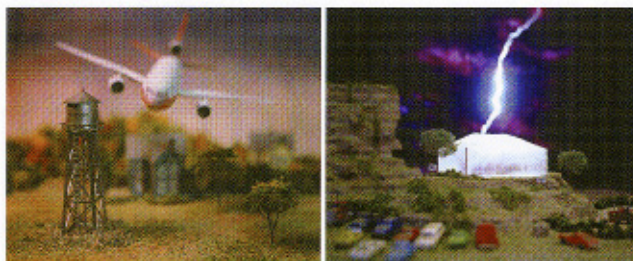
Bar



Botanic Garden

로리 닉스는 그녀가 직접 제작한 디오라마를 사진으로 찍는다. 그녀가 공들여 제작한 미니어처는 미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할 세부적인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다. The City에서는 인류최후, 인간의 흔적으로만 덩그러니 남게 된 폐건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 의해 다시 철회된 공간에서 자연상태의 동식물이 인류 문화의 부스러기와 함께 섞여 간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에서도 그녀는 파멸과 아름다움을 교차시켜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그려냈다.

대부분의 작품에 재해나 붕괴, 버려진 건물 등 다소 어두운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데,



Accidentally Kansas 시리즈

위험상황이나 재해를 무겁지 않게 묘사하고자 한다. 나는 캔자스 주 서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겨울의 폭설, 봄철의 토네이도와 홍수, 여름철 곤충의 습격이나 가뭄을 겪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를 흔란으로 받아들이며 불안이나 걱정, 공포에 휩싸일 때 어린 나는 도취감에 빠져들었다.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이런 사건들은 나를 자극시켰고 쓰러진 나무나 진흙으로 뒤엉킨 길거리, 심지어 산불마저도 내게는 흥미로운 그 자체였다. 또한 1970년대의 재난영화를 보며 자랐는데 <타워링>, <대지진>, <혹성탈출>과 같은 영화를 보며 외경심에 찻던 순간들이 기억난다. 이런 경험은 초기작인 Accidentally Kansas 시리즈 작업을 통해 재현해냈다.

전작들과 The City의 차이점은.

1990년대 초부터 직접 제작한 디오라마를 사진으로 찍어왔다. 초기작

Accidentally Kansas는 철도모형을 위해 생산된 소품에 많이 의존했다. 다양한 시리즈 작업을 계속 해오며 제작실력도 나아지기 시작했고 소재도 점차 복잡해졌다. The City 시리즈부터는 실내로 눈길을 돌려 건축 내부의 모형을 제작했다. 건축 내부는 기둥, 벽, 모퉁이와 천장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또 나는 내 주변 상황을 사진에 반영시킨다. Accidentally Kansas가 어린 시절을 보낸 미국 중서부 지역을 모티브로 삼아 작업한 것이라면 Some Other Place와 Lost에는 미주리 주, 오키오 주, 뉴욕 주에서 보내 온 시간이 고스란히 묘사돼 있다. The City 시리즈는 11년 동안 뉴욕에 살며 관심있게 지켜봐 온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건축물로부터 시작했다. 박물관, 도서관, 극장과 같은 공공장소를 비롯해 세탁소나 바, 진공청소기 판매점과 같은 평범한 일상의 실내도 포함시켰다. The City의 공간들은 뉴욕의 실제 장소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수년 동안 축적된 내 개인적인 기억에 더 가깝다.

The City가 주목하고 있는 요지는 무엇인가.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The City 시리즈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으로 매일같이 빌딩은 버림받고 산산조각나고 붕괴된다. 오직 자연만이 붕괴된 공간을 매우며 생존의 능력을 발휘한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아름답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해석하는 당신만의 뚜렷한 색깔이 보이는데.



Floater

다른 이들은 Floater를 통해 부들과 잡초들이 뒤엉킨 얇은 연못에 엮여 떠 있는 시체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길다란 잎으로 변한 마분지, 부들 꽃모양의 폴리머클레이, 조심스레 접은 사람 모양의 페이퍼 타올이 보

인다. 이런 재료들이 모여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한 회색의 흐린 날씨, 더 나아가 누군가의 안타까운 불운의 사건까지도 연상케 만들어 불안이나 불쾌감을 자아내는 것이 꽤나 흥미롭다.

당신의 스타일에 영향을 준 예술가가 있다면.

풍경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토마스 콜, 아서 듀랜드, 프레더릭 에드윈 처치, 마틴 존슨 히드를 포함한 허드슨 리버 화파와 낭만주의 화가인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좋아한다. 각 화가들은 낭만주의 특유의 장엄함으로 아름다움이나 공포를 초월한 강렬한 정서를 담아낸다.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

학생 시절 대학 내 신문사에서 일을 하며 사진가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암실 작업을 주로 하다 포토 에디터가 됐는데 이후 내 자신이 포토저널리스트의 재량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뉴스를 전하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시점을 포착하는 데 미흡했고 인물사진에 있어 해당 인물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제작한 디오라마를 주 피사체로 두고 대부분의 작업을 하게 된 것인가.

나는 정말이지 다른 종류의 사진에는 소질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난 인물사진을 찍는 데 최약이고 뉴스의 흐름을 잘 잡지 못해 그리 좋은 포토 저널리스트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어서 길을 걸을 때도 고개를 숙여 보도를 바라보며 걷기 때문에 요즘 흔히 찍는 스트리트 사진도 찍어본 적이 없다. 도예를 전공한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를 좋아해 디오라마 작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직접 만든 디오라마를 사진으로 담는 데는 소질이 있었다. 만약에 사진가라는 이유만으로 내게 당신의 결혼식 사진을 부탁한다면 당신은 최악의 워딩사진을 보게 될 것이다.

촬영에 쓰이는 디오라마의 실제 크기는.

제작과정에서 오래 만들기 귀찮은 요소가 꼭 하나씩은 있다. Majestic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위해 오페라 무대를 재현했을 때는 피아노를 만들기 영 난감했다. 그래서 먼저 피아노 모형에 찾아 그 크기에 맞춰 무대를 지어내었다. 즉 피아노 모형의 크기가 전체 디오라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디오라마들은 최소 50x60cm에서 최대는 직경 182cm에 달했다.

디오라마 제작에서 사진 촬영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제작에서 사진촬영까지는 7개월이 족히 걸리는데 최종결과물의 이미지를 얻기 위한 촬영작업에는 2주에서 3주가 걸린다.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는가.

뉴욕타임즈 같은 일간 신문이나 잡지, 공상과학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출근길에 맞이하는 아침햇살, 흔들리는 지하철 안,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이디어를 모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고 참고할 만한 서적을 찾고 스케치한다. 얼마나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이미지가 그려졌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바로 진행되기도 한다.

당신의 사진을 보면 조그만 부분도 디테일하게 처리돼 있다. 디오라마 제작에 꽤나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누구와 함께 작업하는가.

캐슬린과 함께 디오라마를 만들고 있다. 능력에 따라 분업을 한다. 나는 전체적인 콘셉트와 컬러팔레트를 잡고 폼 보드와 접착제로 디오라마의 구성물들을 만든다. 유리공예 전문가인 캐슬린은 특히 유리 주형을 뜨는 데 능하다. 그녀는 이외에도 색을 칠하거나 금박을 이용한 세밀한 도금 작업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색채과정까지 끝난 조형물을 넣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꾸미는 작업도 캐슬린의 몫이다.

디오라마 제작과정을 자세하게 들려달라.

Library의 작업 과정이다. 브루클린 도서관, 뉴욕역 사협회 등 실제 장소에 방문해 공간의 배치, 천장의 높이에서부터 빛에 따른 인상까지 세부사항을 살피고 간단한 사진촬영과 스케치를 한다. 디오라마를 촬영할 방향, 오른쪽



Library

에서 바라볼 건지 왼쪽 혹은 정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철저히 고려해 스케치 작업을 한다. 제작 전 카메라 위치를 세팅하고 디오라마를 만드는 동안에도 한 화각에 고정시킨 카메라의 위치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Library를 위해 제작된 전체 디오라마의 크기는 발코니 난간으로 쓰인 부품에 의해 결정됐다. 벽을 세우고 페인트로 벽을 덧칠한 후 책과 책장, 그 외 가구들을 만든다. 이어 벽의 윗부분 몰딩과 같은 장식요소를 만든다. 색칠도 하고 금박을 입히고 알맞은 자리에 접착시킨다. 그 다음 도서관을 가득 메울 책들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각각의 책은 폼보드에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내 색칠한 것이다. 책장을 채울 충분한 책을 만드는 데 3달 남짓 소요됐으며 책을 배치시키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그동안 캐슬린은 나무를 만들어 설치했다. 이후 실내등과 액자, 테이블, 의자, 표본 케이스와 같은 요소들을 채운다. 가장 마지막으로 지구본을 놓았다. 그럴싸하게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고 나면 캐슬린의 손을 거쳐 넣고 오래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완성되면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 8x10 대형포맷 캄보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에 들어간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조명과 무대 위 소품들의 위치를 변경해가며 촬영하고 이렇게 얻어진 사진은 127cm 정도의 대형 인화를 하는 편이다.

디오라마 또한 개별 작품인 것인가.

나는 사진작업에 있어 어떤 디지털 조작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직접 모델을 만들어 그 설치물 앞에 카메라를 두고 셔터를 누른다. 사진만이 최종 결과물이다. 촬영작업이 끝나면 디오라마를 분해해 다른 디오라마 제작에 재사용할 만한 것들은 따로 보관해두고 나머지는 버린다. 디오라마를 버리는 게 아깝거나 하지 않다. 사진촬영을 마치고 나면 쳐다보기도 싫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디오라마가 딱히 버티고 있던 테이블 위 텅 빈 공간은 다음 새로운 디오라마 작업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1년에 보통 3개 정도의 디오라마를 만들 수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한 The City 시리즈는 향후 3~4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시작한 Unnatural History라는 제목의 흑백시리즈는 자연사 박물관의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뒷모습을 드러냈다. 이 작업은 한 장면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으니 더디게 진행되던 기존 컬러작업들과 비교해보면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로리 닉스 Lori Nix

1969년 미국 켄타키주 Norton출생. 현재는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Unnatural History로 10월 초 시애틀 전시를 계획중이며 10월 28일부터는 뉴욕에서 The City시리즈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이 개인전을 위한 세 개의 디오라마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휴스턴 미술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컬렉션을 비롯해 체이스맨해튼은행, 엘패소 미술관, 스미소니언 미술관, 조지 이스트먼 하우스, 헨리 아트 갤러리 등에 소장돼 있다.

www.lorinix.net